



기톨릭 직장인

2026년 여름호 통권 324호



신주교시슬대교구 직장시록



기독교 직장인

2026년 여름호 통권 324호



표지설명

“사람이 씨를 뿌려 놓으면 밤낮 자고 일어나도 씨는 썩어 터져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우리는 종종 결과를 서둘러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생명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름은 바로 그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말없이 자라나는 생명처럼, 하나님의 은총 또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3 목상글

- 사목일기** 04 침묵이 들려준 생명의 목소리 김명중 시몬
19 교황님과 트럼프, 빛과 어둠 김도훈 라파엘
42 끝이라고 쓰고 시작이라고 읽다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 가톨릭이야기** 08 성심당 창업 70주년 기념 전시 '오래된 진심' 김미진 아녜스
수도회이야기 12 하나님의 정원에 핀 잔 꽃송이들 전성심 마리아 헬레나
wyd 소식 16 가장 작은 교회에서 만난 가장 큰 사랑 임재진 그레고리오
교리 산책 22 사과나무 때문에 원죄가?? 조한규 베네딕토
병원단상 32 아름다운 마무리 김희경 성심
교정단상 38 부활의 기쁨 안에서 되새긴 신앙의 의미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 나의 일터, 나의 신앙** 26 “예”라고 응답할래요 나옴미 루시아
35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 임효선 미카엘라

- 복음 묵상** 30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 49) 김중호 야고보
46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루카 12, 51) 김중호 야고보

- 직장인 성지 Guide** 24 죽산 순교성지 윤정민 마틸다
40 감곡 매곡 성모순례지 성당 윤정민 마틸다

- 해외 성지 Guide** 48 파티마 삼연선 소화테레사

- 56 틀린그림 찾기
성지순례 후기 58 2026년 기타큐슈 야마구치 성지순례
62 News & Views

“
하느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은 가난합니다
”

Ioannes Chrysostomus



침묵이 들려준 생명의 목소리

김명중 시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언젠가 같은 숙소에 사는 형님께로부터 열대어 구피를 두 마리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방 텔레비전이 있던 공간에는 이제 작은 어항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근처 수족관을 쫓아가 테트라를 열 마리 사 왔습니다. 투명한 비닐 속에는 작은 테트라 10마리가 조용히 헤엄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멀치보다도 작은 테트라를 뜰채로 조심스레 한 마리 한 마리 꺼내어 어항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완성했다는 만족감 속에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는,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자리에서 아직 살아 있는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뽀시락 하며 비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날 게 딱히 없는 제방이었지만 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보니,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던 가운데 저는 테트라 한 마리가 비닐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았

A group of colorful goldfish, including orange, red, and white varieties, are swimming in clear water. The fish are scattered across the upper half of the page, with some swimming towards the right and others towards the left. The water is a light, clear blue, and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white.

습니다. 물도 비워지고 납작해진 비닐 안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온몸을 뒤틀거리며 자신이 여기 살아있음을 필사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수족관 사장님이 한 마리를 서비스로 주셨다는 것을 잊은 채 어항에 담긴 열 마리의 물고기에 신이 났던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묵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물고기에게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청계천 방향으로 교우회 미사를 가는 길에는 제가 한 때 활동했던 익숙한 장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한쪽 건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녹음 봉사를 하는 봉사자분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매달 친정을 들리는 마음으로 그곳 로비에 마련된 발달장애인 재활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잠시

고요에 잠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삶의 세계가 저를 맞이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이지만 세상 안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곳에도 이렇게 이루고 삽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오히려 더 큰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간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던 일상이 꽤나 사치처럼 다가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고요에 잠기는 이 시간은 그간의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애에 갇혀 지냈던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명상의 공간이자 고해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간다,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많이 잊고 지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쉽게 관심을 거두곤 합니다. 사회적 참여도가 낮은 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통해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작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을 잃어버린 시대의 풍경입니다.

세상은 점점 정보든 사람이든 선택적 수용을 통해 공동체의 사람들을 배제하거

나 소수만을 위한 커뮤니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연민에 빠져 갈망할수록 우리 안의 사랑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이켜 보면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더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눈을 마주쳐주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경청하며 들어주고, 묵묵히 참아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분들은 분명 저보다 더 큰 사랑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분들은 더 큰 애정으로 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교우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그 작은 생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들리고 있었고,
제가 이제야 비로소 듣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성심당 창업 70주년 기념 전시 ‘오래된 진심’

마음, 빵, 믿음으로 이어 온 70년의 여정을 돌아보다

김미진 아네스_성심당

1982년, 성심당 대표 임영진 요셉과 결혼하여 성심당을 함께 경영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브랜딩, 홍보기획, 디자인, 빵 작업, 인테리어 기타등등 빵 만드는 일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성심당 빵마담입니다.

성심당은 창업 70주년을 맞아 ‘오래된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마음, 빵, 믿음으로 품은 70년’으로 구성되어 펼쳐집니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노점 찜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이 대전의 문화가 되기까지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마음, 철학을 담았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1982년 임영진 요셉과 결혼해 성심당과 함께한 40여년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빵과 성심인 그리고 고객과 함께 웃고, 울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때론 미소 짓게 하고, 때론 울컥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빵집의 역사이자 성심당에 온



마음을 다한 저와 남편 임영진 요셉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담기 위해 성심인들과 함께 2년간 자료를 모으고, 70년사를 발간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전시의 맥락이 잡히고 하나 둘씩 전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950년, 홍남부두의 마지막 배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그 시작은 ‘오래된 진심’이 되었습니다. - 전시 서두 중에서

이 전시는 성심당문화원 3, 4, 5층에서 열리며, 3층 '마음으로 품은 70년'에서는 전쟁과 피난 속에서 시작된 성심당의 출발과 80년대 성심당의 전성기, 90년대 원도심 공동화와 2005년 공장 화재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사훈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로마서 12, 17)"을 하겠다는 복음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의 성심당을 만들었는지를 담은 공간입니다.

맛있는 빵을 만드는 시간을 넘어, 대전이라는 도시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일궈 온 70년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46년간 사랑받아 온 '튀김소보로'와 대전의 풍경을 바꾼 '딸기시루', 그리고 성심당을 대표하는 '전설의 빵' 열 가지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성심인 1,113명의 '거룩한 노동'과 성심당 자체 출판사인 '책내는빵집'의 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층 '믿음으로 품은 70년'은 창업주 부부의 단단한 신앙에서 시작해 교황님의





70주년 기념제품



70주년 기념 케익

축복, 그리고 2대, 3대로 이어오는 믿음을 담았습니다. 이 믿음은 성심당을 지탱해 온 '가장 오래된 진심'입니다.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기념사업들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16일, 'EoC-모두를위한경제(Economy of Communion) 철학을 담은 로컬 기업의 역할과 가능성'이라는 주제

로 기념 포럼을 개최합니다. EoC 분야의 세계적 석학 '루이지노 부르니(Luigino Bruni)' 교수의 초청 강연과 국내 학자들이 '모두를위한경제-EoC'를 실천하는 성심당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것 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과·제빵·외식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성심당이 일 년에 단 하루 쉬는 날 열리는 '성심당 한가족캠프'도 70주년 기

빵으로 품은 70년



성심인 1,113명의 꿈이 모여 하나의 빵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꿈과 열매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이 차차서로 쌓여 하나의 빵으로 구워집니다.



민음으로 품은 70년(위와 아래)



성심당문화원

념으로 특별히 진행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올 가을 10m 대형 축하 케익을 나눌 예정
입니다.

성심당 밀밭농원에 뿌린 우리 밀이 첫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밀을 직접
재배해 얻은 통밀식빵과 밀가루, 소면을
창업 70주년을 기념해 출시했습니다. 70

년에 감사하며 미래로 이어질 진심을 담
아 준비했습니다.

성심당의 7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하느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길이었으며, 그 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는 빵을 통해 “모든 이
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이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하느님의 정원에 핀 잔 꽃송이들

전성심 마리아 헬레나 수녀_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잔디밭 위로 다양한 종류의 작은 들꽃들이 하나둘 피어 있습니다. 벚꽃나물, 제비꽃, 토끼풀, 꽃잔디... 수많은 종류의 들꽃들이 저마다의 이름을 지니고 그 생김새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일부러 찾아본 이름 하나가

‘꽃마리’입니다. 꽃대 끝이 태엽처럼 둥글게 말렸다가 피어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아시는 수녀님들은 이 꽃을 ‘성모님 꽃’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몸을 낮추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연한 하늘빛 꽃들이 소담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참 고요하고 단정합니다. 정말 말없이 하느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신 성모님을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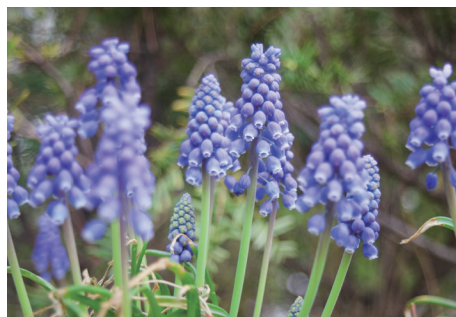


올리게 하고, 또 그 모습이 '마리아'로 살아가기 위해 성체 앞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습과도 닮아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문득 제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대로 살아왔었던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신 마리아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느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남을 보여주는 수녀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습이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친 이를 말로 위로해 주고, 아픈 이를 감싸고, 사랑의 시선으로 언제나

나 환대하는 모습 안에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지니고, 겸손하고 헌신을 다해 살아가시는 수녀님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삶을 배워 나갑니다. 그들의 열심은 요란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지만 잔잔하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느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시선을 끄는 꽃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핀 잔 꽃송이들처럼 조용히 서로를 지탱하며 자신의 시간이 아닌 하느



님의 시간을 살아가려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느님 앞에 겸손한 이들 안에서 가장 깊은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봄이 지나가듯이 확연히 드러남 없이 그저 ‘마리아’로 살아가기 위해 서툴지만 성실한 걸음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꽃이 피고 지는 순서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성모님 동산 주위로 꽃나무가 우거지고 몽우리진 장미꽃이 피어날 때를 기다리는 5월이 되면 매주 토요일과 주일 저녁, 날이 좋은 날에는 행렬을 하며 성모님 주위로 모여듭니다. 각자가 만든 각양각색의 초호롱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모님을 생각하며 마련한 색색의 초호롱에 불을 밝혀 ‘성모호칭기도’를 노래하며 어둠이 가까운 시간, 하나둘 밝혀진 등불로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말로 다 표현하

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 빛 안에서 조용히 하느님께 닿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정원에 핀 잔 꽃송이처럼 성모님의 마음으로 잔잔하게 피어 세상이 조금이나마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연민을 지니고 우리 기도에 의탁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간절함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봉헌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기뻐하시듯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교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의 꽃들로 피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고 여릴지라도 그분의 손길 안에서 가장 알맞은 자리에 심겨졌지요. 하느님의 정원에 핀 잔 꽃송이들처럼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꽃으로 살아가시기를 성체 앞에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가장 작은 교회에서 만난 가장 큰 사랑

찾아가는 초대, 몽골을 다녀와서

임재진 그레고리오_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뉴스레터팀 봉사자당

[편집 주]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직장인사목부 가족 여러분.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찾으려 애쓰는 교우 여러분께, 작년 여름 ‘찾아가는 초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로 몽골 지목구에서 만난 소담한 신앙의 현장을 전해 드립니다.

신앙의 최전방, 몽골로 향하다

2025년 7월 저희 팀은 ‘신앙의 최전방’이라 불리는 몽골로 향했습니다. 몽골 가톨릭 신자는 인구의 0.04%로, 약 1,500명 남짓입니다.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방문해 격려하셨던 이 작고 젊은 교회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조르조 마렌고 추기경과 함께 한 초대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맑음

울란바토르 6개 본당 연합 여름캠프에서 만난 100여 명의 청년은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몽골 교회의 주요 구성원은 스무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가난과 부모님의 반대라는 장벽 앞에서 자그마한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주님을 찾는 우리와 달리, 이미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성당을 학교이자 놀이터, 안식처로 삼으며, 몽골 유일의 현지인 사제인 산자 베드로 신부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K-문화로 이어진 ‘서울 WYD’라는 희망

한국 문화에 대한 몽골 아이들의 호기심도 대단했습니다. K-POP과 드라마로



몽골 성바오로 성당에서 만난 소녀

형성된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2027년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는 WYD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직장인 신자들에게 전하는 초대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는 일은

때로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몽골 청년들이 보여 준 순수한 열정은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서울 WYD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처럼 멀리 있는 형제들과 하나 되어 주님을 찬미하는 소중한 나눔의 장입니다. 2027년 서울에서 몽골의 그 맑은 눈빛을 다시 만날 날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여정에 직장인 교우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

여름캠프 참가자 전체와 함께 성당 앞에서
- 성당이지만, 십자가를 외부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셨습니다.



교황님과 트럼프, 빛과 어둠

김도훈 라파엘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의라는 명분 아래 이란에서 일으킨 전쟁이 휴전 중이라고 합니다만(현재 4월 17일), 이미 민간인을 포함한 수 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짜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악의 축인 이란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구촌 그 누구도 그 명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국의 이익, 혹은 트럼프 일가의 이윤추구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 전쟁에 대해서 교황님의 메시지도 또한 예외는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와 미국 정부는 작금의 전쟁을 성전으로 묘사하며 신은 미국편에 있고 따라서 교회는 선과 정의에 입각한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일토당토않은 주장에 대하여 교황님은 “하느님은 어떤 형태의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일갈하셨습니다. 나아가 부활의 메시지 또한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들은 평화를 택하라.”, “무기를 내려 놓으라.”, “평화를 선택하라.”며 국제사회 모두가 평화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요한3,20)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트럼프와 미국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굵힌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교황님과 교회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되려 혼구녕이 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시작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벤

스 부통령이 교황님의 전쟁 비판 발언에 “교황은 신학적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정치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며 교황님과 교회를 가르치려는 주제 모르는 어리석음과 꼴값은 애교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교황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교황이고 뭐고 필요 없고,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하느님의 자비 주일에 트럼프는 AI로 예수님의 사진에 자신을 합성한 한없이 자비로워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며 교황님과 예수님, 나아가 전 세계 25억 그리스도교 신자를 모독하는 사진을 게시합니다. 12시간 후에나 예수가 아니라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며 사진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추후 비슷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신을 신성시하는 과대망상 정신병에 걸린 것이 분명 합니다.

끝없이 악수를 거듭하며 교황과 교회, 하느님을 모독하는 트럼프와 미국정부를



애잔하게 바라봅시다.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합니까? 어찌 값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지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을까요? 온갖 조롱과 거짓과 위선으로 악의 세력이 교회를 때리면 때릴수록 교회는 더욱 선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고, 악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비추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하느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자기 헌신을 수행할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존재하는 것이며, 반면에 교회가 하느님 백성의 신음을 외면 한 채 자기 안위만 지키려 하고, 자신을 위해 탐욕스럽게 물질과 자본을 소유하려 한다면, 그때 교회

는 죽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간에 별꼴을 다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교우들에게 이 글을 읽는 날에는 종전의 소식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부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

사과나무 때문에 원죄가??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_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하느님은 왜 하필 에덴동산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뱀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죄지를 빌미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만약에 사과나무(=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뱀이 없었더라면, 첫 인간이 죄짓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인간이 원죄의 굴레에 빠질 일도 없으며,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하느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자 하시며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셨다고 합니다(창조 창세 1,26-27).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흠으

로 빛은 먼지에 하느님의 숨을 불어 넣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전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공통점은 영적인 존재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하느님은 영 자체가신 성령(聖靈)이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영 일부가 육체와 합해진 영적인 존재 혹은 정신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처음 인간이 창조되어 하느님과 함께 했을 때 인간은 근심 걱정 없었고, 아프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문밖이 위험하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에 가둬두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쳐 주고 보호해 주면서,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만일 하느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거나 죽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한편으로 하느님 모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에덴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에덴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 많은 세계,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기에, 하느님께 순종하며, 하느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정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완성 내지 구원이란 단순히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진리, 생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때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고,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즉 요한복음 8,31-32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인간 완성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고 방법이며 결론이라고 그리스도교는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갑시다! ☺

죽산 순교성지

윤정민 마틸다

죽산 순교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많은 교우가 모진 고문을 당하며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성지입니다. ‘거길 끌려가면 죽은 사람이니 잊으라.’ 하여 ‘잊은 터’로 불리던 순교 터입니다.

웅장한 성역 문을 지나면 푸른 잔디밭의 넓은 성지 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을 둘러싼 커다란 목주 알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미 덩굴에 감싸여 있습니다. 이어지는 중앙 언덕의 십자가 고상 아래에는 『치명 일기』와 『증언록』에 기록된 24위

복자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박경진 프란치스코와 오 마르가리타 부부, 여기중, 여정문과 그 아내, 여정문의 장남 등 일가족을 포함한 24명 순교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과 봉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가운데에는 더욱 크고 둥근 봉분의 무명 순교자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묘역 위쪽으로는 순교자들을 감싸안는 형상의 십자가의 길 14처가 이어집니다.

성지 성당은 미사 시간에만 개방되지만, 소성당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넓은





쉼터 옆에 자리하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지 곳곳에는 아름다운 조경과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 순례객은 물론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 줍니다.

죽산 순교성지에서 자동차로 약 7분 거리에 조선 시대 죽산 도호부의 옥사가 있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병인박해 당시 많은 천주교 신자가 이곳으로 끌려와 갇힌 채, 혹독한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굳

건히 신앙을 지키다 끝내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한 곳입니다. 지금은 죽산 면 사무소가 들어선 그 자리 입구에, 역사적 현장을 기리는 기념비와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죽산 순교성지는 단순한 역사의 현장을 넘어,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신앙이 이어지는 역사적 터전입니다. 더불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순교한 이들의 믿음을 앞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신앙의 깊이를 조용히 성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예”라고 응답할래요

나염미 루시아_한국은행 교우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마리아는 어떠한 질문이나 변명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12월의 끝자락에 생각합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기쁨과 감사, 후회와 미안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저를 침묵으로 가르쳐주



십니다. 움츠리고 머물러 있어도 변화하지 못해도 저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서진 그대로 괜찮다고 위로하시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한국은행 가톨릭교우회는 1977년 여성 교우 5명의 기도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해 5월 1일 ‘참된 신앙생활 영위와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교우회를 조직하였고 2025년 4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미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창립 40주년 감사미사를 본점에서 봉헌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다니엘 3,89)

말씀을 바탕으로 전)서울대교구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님께서 “새로운 도약과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감사미사를 주례하셨습니다. 주교님은 강론에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데, 본당이든 직장이든 ‘천국의 맛’을 보여 주는 곳이 신앙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단식에서 보듯 성경에서 숫자 40은 준비의 기간이라며 “이제 한 단계 도약해 ‘더 신자답게’, ‘신앙공동체답게’ 살아가는 교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교님은 일터에서 복음을 나누며 형제애를 쌓아온 직원 교우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수영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의 수영선수로 이어졌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직장 선수까지 오랫동안 단체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힘든 훈련과 시합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늘 긴장하고 경쟁하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목시 12:6)



2017년 3월 27일 창립 40주년 감사미사를 마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일하던 어느 날,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직장동료의 혼배 성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웅장한 성당 내부보다는 내 시선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져 버릴 것 같아 성전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렬한 느낌과 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하였고 세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는 늘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듯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 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사 이동으로 부서 이동을 할 때면 늘 그곳에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 또 영적으로 충만한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주셨고 믿음을 키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를 믿음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여 매주 각각 한번씩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성경 공부, 소그룹 나눔을 하고 매달 한 번 있는 미사

를 참석했습니다. 교우회 미사가 있는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고 꽃꽂이를 하여 제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꽃꽂이를 배운 것도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부 리모델링으로 강남본부에서 일할 때는 강남교우회 회장 겸 총무로 활동했습니다. 본부의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어 본부 소속 직원들이 본점으로 오게 되면서 남아 있는 강남교우회 신자가 많이 줄어 더 이상 미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제 손으로 정리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공정과 자비 안에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쉽게 유혹되고, 투덜대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자주 주님을 놓쳐 버리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 많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은행 가톨릭 교우회 신자로 2026년 1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7년 교우회 창립 50주년을 교우회 신자들과 함께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교우회는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와 퇴직으로 인하여 교우회 신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누군가 봉사를 해야 하는데 미사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설자, 미사, 제대를 준비할 직원들이 휴가나 연수로 자리를 비울 때는 대신 해줄 교우회 신자가 부족합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주님은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 일을 앞세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일치를 이루고자 노심초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언제나 그분의 따뜻한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루카 12, 49)

김종호 야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제가 강원도에서 군 복무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새벽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내무반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기상, 기상”이라는 날카로운 소리가 빠른 행동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대장은 작업 복장에 도구를 갖추어 집합하라 했습니다. 전투복 바지에 오렌지 색 운동복 상의를 입고 도구를 갖추어 트럭에 탔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갔을까요? 바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 다.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 어두운 새벽에 갑자기 동이 터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차를 명 받고 트

력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불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투입되어 산불에 가까이 갔을 때의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나무에서 화염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모양을 바꾸던 모습, 후끈거리는 열기, 발을 디딜 때마다 전투화 주변으로 피어오르던 재와 먼지……. 정신없이 불을 끄다 보니 해가 떴습니다.

날이 밝아지자 불이 지나간 자리들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산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사히 부대에 복귀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엄청난 산불과 마주했던 젊은 군인들이 갖추고 있던 장비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산불은 어떻게 났던 걸까요? 만약 그 불을 어떤 사람이 고의로 낸 것이라면 그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 입에서 저 말씀이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수님의 진심에 가 닿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방화범이 되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하느님 말씀이 활활 타올라 인간의 성질이 변하고, 죄는 재가 되어 날아가며, 타오른 곳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터전으로 변하는 영적인 불, 예수님께서서는 결국 불을 지르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이지요.

우리 역시 거룩한 방화범이 되라고 초대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불이 옮겨가는 건 화염이 직접 닿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은 열을 통해서도 옮겨붙습니다. 바로 복사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불은 신앙인들이 지닌 열로 전달됩니다. 직접 가 닿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지르시는 불로 가득하길 원한다면 그분의 불로 우리가 먼저 뜨거워지면 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김희경 성심 수녀_순천향대 서울병원 원목실

김OO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김OO 성심수녀님께

+ 찬미 예수님.지난 12월 28일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임OO 토머스모어님의 딸 임OO 카타리나입니다. 슬픔과 경황이 없던 입원 기간 동안,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기도로 큰 위로를 주신 신부님과 수녀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미국에서 달려와 아버지를 간병하며 막막하던 차에, 복도에서 우연히 수녀님을 뵈게 된 것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외부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까워하던 저희의 간절함을 읽어주시고, 바쁜신 와중에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두 분의 정성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집전해 주시고, 임종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해 주시던 순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

지 못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보살핌 속에 고통을 덜고,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로 머무르실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이었던,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신 12월 28일, 온 가족이 다 함께 병원 미사에 참여하며 주님께 아버지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도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미리 열어주시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93세의 긴 여정을 마치고 선종하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계실 거라 믿으며, 저희 가족 또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치고 아픈 이들이 가득한 병원 안에서, 매일같이 희망과 빛을 전하시는 두 분의 귀한 사명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두 분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저희 가족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임OO 토머스모어님의
딸 임OO 카타리나 드림

일사천리. 토마스모어 할아버지의 임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빠르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았고, 미국에 사는 따님이 한국에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시간 안에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토마스모어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기도하러 방문할 때마다 천천히 눈을 뜨신 후 눈을 잠시 마주치고 다시 당신의 세계로 빠져들곤 하셨습니다. 고요하게, 천천히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고령이시라 코로나 이후 성당에 나가지 못하셨고 따님도 미국에 사니 교적 본당에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 본당 위령회장님이 우리 원목실의 오랜 봉사자셨습니다. 그래서 본당과도 연결이 잘 되어 연도도 많이 받고 장례미사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을 하느님께서 손수 채워주고 계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병원 미사에 따님이 찾



아오셔서 주신 편지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일상을 되찾아야 하는데, 병원 미사에 와서 미사도 드리고 봉사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을 만나는 것이 마무리라 하셨지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셨으니 마지막을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면서요. 원목 소임을 하고 있지만 아픈 환자를 만나고 임종까지 지켜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부모님을 하느님께 보내드리는 ‘마지막’을 겪었고, 또한 그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은총이 담겨 있는지를 이미 수없이 보고 느꼈기에 매번 하느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감사하며 함께 환자분들과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사순시기 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요한 11,37)라는 말씀



을 묵상하며 머칠을 붙든 적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것과 다시 살리는 것의 차이, 유
혹을 없애주는 것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
록 힘을 주는 것의 차이, 고통 자체를 겪지
않길 바라는 것과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

는 것의 차이, 심판과 구원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듣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저희
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하느님께 받은 부르심

임효선 미카엘라_외교통상부 교우회



외교부 가톨릭 교우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성서 모임을 위해 모인 10명 규모의 신자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교우들이 직업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어 매월 모이는 인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우

20여 명 정도입니다. 교우들은 매월 한 차례 모여 담당 신부님이신 김도훈 라파엘 신부님과 함께 월례 미사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24시간 내내 연락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긴장 속에 살아가기도 하며,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마음껏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톨릭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외교부 직원들은 여러 차례 해외에 파견되어 몇 년씩 외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생활 여건이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의 근무도 경험해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때로는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다시 중심을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해외 근무를 할 때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그 나라의 국내 정세도 매우 악화한 시기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

김도훈 신부님 축일 축하



습니다. 폭우 속에서 맨발로 물건을 파는 아이들, 가난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극을 보고만 있으신지 의문을 던지기도 했고, 왜 하필 이 시기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수녀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은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떠나 무력 충돌이 빈번한 지역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질문만 던지고 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녀님들의 활동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실

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곳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임기를 채우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가톨릭 직장인 교우회 공동체 안에서 배운 가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vocation은 ‘부르다’라는 뜻의 라틴어 vocare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외교부 가톨릭 교우들은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 놓인 여러 지역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리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 소명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부활의 기쁨 안에서 되새긴 신앙의 의미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4월 8일,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부활미사와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소년 수형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 교정 사목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인성과 신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배워갑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용서와 화해를 익혀가는 시간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번 부활미사와 세례식은 한 달 전부터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세례를 앞둔 아이들은 교리 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배우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왔고, 설렘과 기대 속에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로 함께해 주실 분들 또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많은 이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여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수구가 막히며 하수가 역류해 강의실과 사무실이 침수되었고, 예정된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도관들의 협조로 세례 대상자들만이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는 더욱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준비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함께한 이들의 마음은 더욱 깊이 하나로 모였고, 아이들은 무사히 세례를 받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준비했던 성가를 함께 나누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직접 전하고자 했던 간식과 부활 선물도 전해주는 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한 부분은 분명 아쉬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더라도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준비와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이 신앙의 중심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임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기도와 진실한 마음이 살아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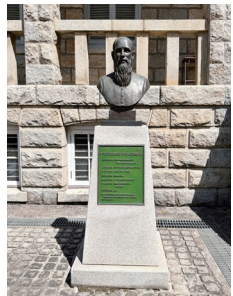
감곡 매괴 성모순례지 성당

윤정민 마틸다

감곡 매괴 성모순례지 성당은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임 가밀로 신부님이 매괴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세운 유서 깊은 성지입니다. 1896년 5월 성모 성월, 신부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명성 황후의 육촌 오빠인 민응식의 대궐 같은 집과 산을 매입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감곡 본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감곡 시내 어디서든 눈길을 사로잡는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 성당은 1930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신사 터가 될 뻔했던 장소는 1955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성모 승천 광장으로 봉헌되었습니다.

1914년 지방에서 거행된 최초의 성체 신심 행사인 성체 거동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매해 10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이어지며 성체 신심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성체 현양 대회 100주년을 맞아 성모 광장을 확장하고 루르드 마사비엘 동굴과 동일한 형태의 성모 동굴을 봉헌하였습니다.

루르드에서 제작된 매괴 성모님 상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총탄에도 부서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7개의 탄흔으로 인해 ‘칠고의 어머니’로 불리며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 옛 사제관을 개조한 박물관에는 본당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아늑한 성체 조배실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파른 산을 오르면 거대한 산상 십자가와 임 가밀로 신부

님의 동상, 그리고 성당 안에 모셔진 신부님의 묘를 참배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성체 신심을 바탕으로 150여 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배출한 이곳은 오늘날 은총과 치유의 빛이 충만한 성지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끝이라고 쓰고 시작이라고 읽다

마침표는 쉼표입니다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어린 시절 저는 증조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동생들은 부모님 곁에서 지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방에서 잠 들고 할머니 방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깨워 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일어나셔도 곧게 펴지 못하시는 몸으로, 그래도 늘 거기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이 누구에게나 마냥 순탄하지는 않듯, 저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 시간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함께 버텨 주고 계셨는지를.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도 정작 저는 그 사랑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틈조차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할머니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에도, 그래도 할머니께는 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용돈이 생기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간식을 사 들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끝이라고 쓰고
시작이라고 읽다
마침표는 쉼표입니다 ♥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끝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만남이 시작되는,
또 다른 문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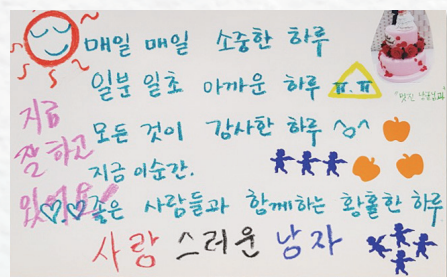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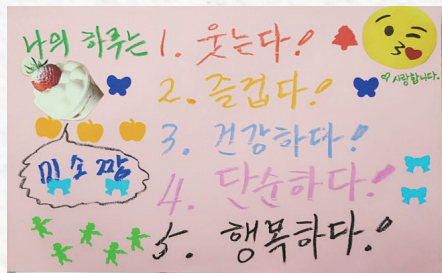
그러면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다 먹지도 못하고 죽겠다. 너무 많이 사 왔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할머니식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분이, 당신이 가진 방식으로 전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가져온 작은 간식 하나에 그렇게 웃어 주셨다는 것, 지금도 가끔 기억날때 할머니에게 아주 작은 보답이라도 했다는 안심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어린 마음에는 슬픔만 컸습니다. 죽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신앙 안에서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느님 안에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억 속에서 조용히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음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죽을 뻔한 경험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떠남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



도 합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꽤 오래 헤맸습니다. 삶의 비밀을 알려줄 것 같았던 책들을 적지 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솔직히 어떤 책은 읽다 보면 은총보다 줄음이 먼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길을 밝혀줄 수 있지만, 그 지식 자체가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요한 11,25)

신앙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지막 문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듯, 떠난 뒤에도 하느님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소방사목을 하면서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방현장은 누구보다 삶과 죽음의 경계 가까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돌아온 뒤에도 그 무게를 오래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누구보다 묵직한 질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은 정말 끝인가. 이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소방현장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하루의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마주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끝



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희망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내 힘이 다한 자리에서도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구약의 모세(탈출 4,10)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너무 어리다 했으며(예레 1,6), 사도 베드로는 두려움에 세 번 부인했습니다.(루카 22,54) 그러나 하느님은 늘 부족한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관계의 끝 앞에, 건강의 끝 앞에, 희망의 끝이라 느끼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굽은 허리로 밥을 차려 주시던 할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늘 따듯함을 일으키듯,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랑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느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끝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 계신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하느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지 모릅니다. 신앙 안에서 끝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만남이 시작되는, 또 다른 문입니다.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 51)

김종호 야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루카 12,52).”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족의 화합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덕목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네 집 벽에 하나씩 걸려있던 가훈(家訓) 중에 인기 있던 문장이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었지요. 예수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충격적인 말씀 뒤에 가족의 분열을 예견하십니다. 자신이 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

신 거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 49).”는 말씀과 바로 이어지기에 극적인 느낌이 한층 더 커집니다.

이 말씀은 안전하게 구축된 평화보다 진리를 마주한 이들이 겪는 불화가 더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낡은 하느님 관은 불타 버리고 하느님의 새로운 뜻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천주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히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유진길 아우구스티노(1791~1839) 성인의 가정입니다. 유진길

성인은 우리 교회에 크나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하상 바오로, 조신철 가톨릭으로 성인과 성직자 영입 운동을 주도하셨고 우리 교회가 조선대목구로 설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들 유대철 베드로(1826~1839) 성인과 나란히 우리 교회를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유진길 성인의 자녀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근거로 유대철 성인에게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9권 6776쪽).

유대철 성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말리는 것을 넘어 박해 수준의 핍박을 가하며 아들이 신앙을 포기하길 바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로서 또 유씨 집안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천주교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막는 길이었을 테니까요. 딸은 어머니를 따랐습

니다. 유대철 성인의 남동생은 신앙을 가졌으니, 성인의 집안은 아버지와 두 아들, 어머니와 딸, 3대 2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분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족이 둘로 나뉘었으니 불행하다 할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집안은 불화를 빚었으며 결국은 무너졌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분열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어떤 분열은 하나님의 신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판치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분열은 역설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정에서, 또 지금 이 순간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분열을 겪는 수많은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주시는 분열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

파티마

심연선 소화데레사_성지순례 전문 여행 가이드

파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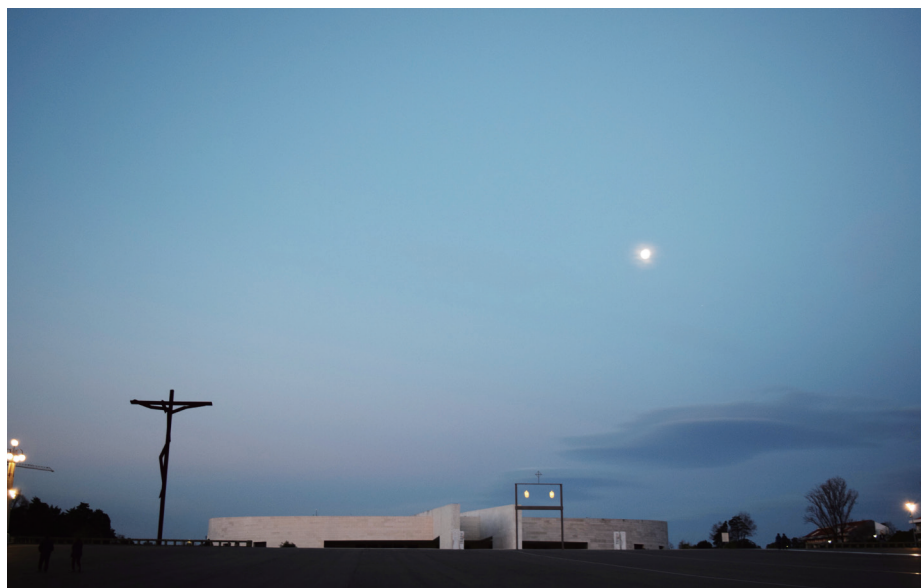


파티마 발현 성당

따뜻한 5월이 되면 떠오르는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파티마입니다.

1917년 5월 13일에 파티마 근교의 ‘코바 다 이리아’라는 곳에서 루치아,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이 세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시고 그 곳에서, 그 해 10월 13일까지 총 여섯 번 발현하셨습니다. 루르드, 과달루페와 함께 3대 성모 발현지로 꼽히는 이 파티마는 루르드와 마찬가지로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큰 성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한항공 직항이 취항을 해서 파티마 성지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리스본 포르텔라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 비오는 날의 파티마, 아래: 파티마 성삼위성당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두 시간 정도면 도달합니다.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루르드와는 달리 이곳은 널찍하고 평평한 곳입니다. 평야지역인가 싶지만 어디선가 심상치 않게 불어오는 바람이 지대가 다소 높은 곳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은 해발 약 400미터 정도 되는 구릉지대입니다.

성지 어귀의 로터리에 성모님 발현을 목격한 세 어린이들 동상이 보입니다. 성모님 발현때 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성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바빠 움직입니다. 루르드에 도착했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뻔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물가게들과 호텔들이었는데 이곳도 비슷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파티마의 성모님을 만나러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님이 발현하신 5월 13일 ~ 10월 13일에는 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순례를 옵니

다. 사람이 많은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신다면 성모님 발현일을 피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탁 트여진 벌판에 성당들이 잘 보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례할 곳은 발현성당입니다. 광장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먼저 온 순례자들이 기도하고 또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서 자연스레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작은 성당과, 성모상이 제대 뒤로 보이는데 바로 그 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고 합니다. 오픈된 장소여서 조금 산만하기도 하지만 저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에서 더 자연스럽게 성모님의 발현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발현정당을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으로 큰 성당들이 보입니다.

우선 오른쪽 먼저 가봅니다. 여느 유럽의 아름다운 성당처럼 지어진 이 성당은 묵주기도의 성모 대성당 또는 파티마 성



파티마 천사발현과 목격한 아이들



파티마 묵주기도 대성당





위: 파티아 성삼위성당 내부, 아래: 파티마 십자가의 길

모 대성당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제대 양 옆으로 성모발현을 목격한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야친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성모님 곁에 머무르고 있겠다 싶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성당을 나와 맞은편으로 큰 십자가와 모던한 성당이 보입니다. 그곳을 향해 발현성당을 지나쳐 걸어가다보면, 바닥에 하얀 돌판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무릎으로 기어가며 기도하는 신자들이 보입니다. 임신부도 무릎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맞은편에 있는 성당은 성삼위일체 대성당입니다. 8000여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엄청난 규모의 현대식 성당입니다. 방금 다녀온 목주기도 성모 대성당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밝은 모습입니다. 제대 뒤로 모자이크가 있는데 성인 성자들과 함께 성모님,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수녀님이 된 루시아가 보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천국의 의미가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하 경당에 성체조배실과 기도할 수 있

는 장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지 입구 쪽에 십자가의 길도 있습니다. 올리브 발과 떡갈나무 발 사이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루치아의 생가에 도착합니다. 근처에서 사촌이었던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생가도 볼 수 있습니다.

루르드 성지에서처럼 이곳 파티마도 행렬을 이루어 밤에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루르드하고 비교하자면 조금 덜 다듬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치만 음식은 루르드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포르투갈 커피와 빵 그리고 버터, 바깥라우 등 포르투갈 음식이 참으로 맛있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의 품에서 기도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영과 육의 삶을 짜워가기에 더없이 좋은 성지입니다. ☺

틀린그림 3곳을 찾은 후
사진을 찍어주세요.

6월 30일(화)까지
QR코드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시면
2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휴대폰 뒷자리)

2681, 5735, 4930, 9719,
7912, 3549, 8226, 3010,
9356, 9892, 4246, 8711,
6252, 6493, 7235, 5917,
1897, 4823, 0045, 8314



예수님은 부활 이후 단순히 무덤에서 되살아나신 분에
그치지 않고, 사도신경에 언급된 것처럼 저승의 세계로
내려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빛나는 흰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지옥문의 교차한 날
개 위에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로는 부서진 열쇠
와 자물쇠가 하데스(죽음의 세계)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
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
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아담의 손목을
잡고 무덤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아담을 구해내는 모습은
개인을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인 하와가 붉은 옷을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

합니다. 주변에는 구약 시대의 왕과 예언자, 의로운 인물
이 있으며,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를 상징합
니다. 이들의 시선과 자세는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
그분이 중심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밝게 빛나
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두운 배경과 인물들과 강한 대비
를 이루며, 지옥을 상징하는 어둠 속에 구원의 희망을 드
러냅니다.

동방 정교회의 미술은 부활의 순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
기보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를 부수고 인간을 살려내
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
순한 사건의 묘사를 넘어, 죽음에 대한 승리와 인류 전체
를 향한 구원 의미를 담은 그림입니다.



〈예수 고성소(古聖所)에 내려가심〉 - 부활

러시아, 16세기, 작자 미상, 목판 위 템페라, 레크링 하우젠 미술관 소장, 131×104cm

2026년 기타큐슈 야마구치 성지순례

😊 다양한 일터에서 모여 가깝고도 낯선 일본에서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체험한 귀한 성지순례였습니다. 말씀을 늘 생활 속에서 가까이하며,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냉담하던 나에게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온 감진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가이드분의 풍부한 지식과 해설 덕분에 일본 가톨릭 신자들의 박해에 마음이 무거

웠으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신앙심 깊은 선조들이 계셨기에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었지 않나 묵상해봅니다다음에도 이런 뜻깊은 기회에 저에게 다시 주어길 기도해봅니다. 아멘.

😊 생애 최초의 해외 성지 순례 기간은 짧은 일정이었다. 그러나 다수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불가피한 일정이었으리라 그만큼 새벽 비행기로 출국과 밤 비행기의 귀국 시간은 나로서



는 벅찬 일정이었다.그러나 은총의 순간은 긴 시간이었다. 성지에서 드리는 미사마다 찾아왔다. 특히 내가 막연히 알던 선교사 하비에르 성인의 기념성당에서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뜨거운 소명을 기도했다. 인간의 종락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아멘.



nn 알려지지 않은 일본 기타큐슈의 지역에서 고문받고도 신앙을 지켜온 옛 신자의 믿음을 생각하며 현재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현재를 감사드립니다.3일 동안 매일 미사 봉헌이 좋았고, 특히 작은 성당을 지키는 노신부님 노수녀님의 밝은 미소와 함께 미사 봉헌이 큰 기쁨과 감동이었습니다.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면서 혹시 더 나빠져서 민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는데 뜨신 물에 반신욕과 온천욕으로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사순시기 성지순례에 주님의 은총을 받아 더 건





강해집을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에게 딱 맞는 맞춤 성지순례에 내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서초구청 강선영 요 안나 드림

😊 두 분의 신부님과 인솔자 선생님 모두 많은 인원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교우회분들이 신앙을 가꾸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25년 마카오 성지순례의 좋은 기억을 안고 올해 기타큐슈 성지순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순교 역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으나, 일본도 천주교 초기 전례 당시 박해와 교인들의 많은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성지순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직장공동체 도보 순례

4월 18일(토) 23개 교우회, 150여 명 참석(가회동성당 →광화문 124위 시복터→좌포도청터→종로성당)하신 도보순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도보성지순례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우협의회 창립 30주년 신앙대회

일시 9월 5일(토) 13시~17시

장소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내용 복음특강 및 문화 공연 장엄미사 등

대상 서울시 가톨릭공직자 및 가족, 퇴직자

문의(신청) 기관별 교우회 총무

2026년 견진성사

5월 16일(토), 18:00 명동 패밀리아채플에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주례로 40분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명	인원	직장명	인원
KOTRA	1	서초구청	4
간삼건축	1	양천구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	2	외교통상부	1
국회	1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롯데백화점	1	마포구청	5
한국애보트	1	서울시청	5
교우회 외	3		

★문의 ☎ 02-727-2078, 010-7354-2078  http://pf.kakao.com/_uBNxIX/chat

26년 봄 직장공동체 도보성지순례 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중요한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부가 모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졌을때는 재회가 궁극의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아플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눈먼 사람은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거지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픈 사람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봅니다.

사실, 행복은 단지 마음가짐일 뿐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갈망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꿈꿉니다.

무명인은 명성을 갈구하고, 유명인은 사생활을 동경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이 되길 바라고,

어른들은 시간을 되돌리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들은 밤에 잠을 못이루고 부를 쫓다 잃어버린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것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잠시 멈추어 보기만 한다면 모두가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로
 꽃잎을 씻고
 바람 불면
 바람길로
 줄기를 빚고



2024.04.24. 12:14
 2024.04.24. 12:14

